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3회 정례 플로깅 캠페인 개최

윤 서용은기자 | 승인 2025.11.05 11:26

환경·문화유산 보존, ESG 융합 모델로 발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3회 정례 플로깅 캠페인 개최.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5일 봉평면 팔석정 일원에서 임직원과 평창시니어클럽 회원 등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정례 플로깅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공단의 대표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정례화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ESG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공단은 2023년 계방산 등산로에서 첫 플로깅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2024년 광천선굴과 계방산 일대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 '문화재와 함께 걷는 청정 평창'을 주제로 기존 시설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봉평면 팔석정 일대로 범위를 넓혀, 환경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결합한 융합형 ESG 모델을 선보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ESG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팔석정 주변 산책로와 봉평천변을 따라 걸으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활동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선별을 거쳐 재활용 자원으로 순환됐다.

또한 평창시니어클럽과의 3년 연속 협력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형 환경보호 활동'을 구현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가꾸며 환경을 지키는 일이 보람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3년 연속 이어진 플로깅 캠페인은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환경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올해는 문화유산 보존까지 더해 ESG 실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플로깅 활동 후 '지역상생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 관광 활성화 및 향후 ESG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월정사, 상원사 등 평창의 주요 문화재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용은기자

ye_seo@jeone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은기자